





# 백두산 해돋이여, 더 붉게 라오르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태양이 솟는다.

만리창공에 백발을 날리며 거센히 솟아있는 조종의 산우에, 폭풍지며 설레이는 밀림의 바다우에 눈부시게 불타오르는 백두의 붉은 노을.

불수룩 장엄하고 아름답으며 새겨 안을수록 숭엄하고 성스러운 백두산의 해돋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이 낳아 깃들여있고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입니다.》

백두산은 신비로운 자연의 세계를 안고있는 명산중의 명산이다.

령역이 광범하고 산세가 장엄하며 경관 또한 독특하고 이채로운 백두산이 자기들 한껏 드러내며 만방에 펼쳐지는 순간이 바로 해돋이순간이다.

파도쳐 설레이는 천리수해에 신비스러운 빛발을 뿌리며 솟아오르는 태양의 모습은 장쾌하게 그치지 않고 천지의 하늘가를 붉게 물들이며 퍼져가는 노을빛은 황홀하기 이를데 없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엄한 백두산의 해돋이를 우리 어찌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부터 간수할수 있으랴.

백두산의 해돋이는 천출명장들의 광휘로운 빛발이 그대로 비친 찬란한 해돋이이다.

백두산 줄기줄기마다에 뜨겁게 어둠이 있다. 백두산호랑이로 명성떨친 우리 수령님께서 눈보라민리길에 적으신 피어린 자욱자욱과 함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령부총위의 총성 한 자욱,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우리 장군님께서 조신의 밝은 앞날을 펼쳐가시며 고향집뜨락에 력력히 आरो가신 위대한 성자의 자욱이.

그 자욱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대대로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게 되었으니 백두산의 해돋이야말로 위대한 태양민족의 끝없는 영광과 환희를 안겨주는 해돋이가 아니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백두산의 해돋이와 더불어 전해지는 감동깊은 화폭을 잊을수 없다.

주제 87(1998)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해돋이를 보시려고 물소 새벽어들을 헤쳐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것처럼 엄숙했던 그날의 나날을 승리적으로 헤쳐오신 뜨거운 추억을 안고서 백두산마루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의

심중은 얼마나 깊으셨으랴.

드디어 백두산의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사위는 아직 어두운데 동녘하늘이 푸르스름히 열리더니 불현듯 하나의 새빨간 점이 솟아올랐다. 이윽고 그것이 점차 붉은 선으로 굵게 퍼져오르면서 잠간사이엔 구름떼를 뒤받쳐놓으며 하늘이 어데고 땅이 어데나실게 소소리높은 기압압박력과 천지의 푸른 물결, 아득한 밀림의 바다를 온통 하나의 진홍빛으로 물들어놓았다.

순간 우리 장군님께서 저것 보라고, 해돋이를 앞두고 백두산의 하늘이 그 화를 부리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이 울리는것과 동시에 시벨전 구름장을 달구어놓으며 커다란 불덩이가 솟구쳐올랐다.

화광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태양, 붉은 파도를 일기며 끝없이 실례하는 천국의 밀림, 드넓은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환희를 펼쳐주는 장쾌한 노을, 백두산의 해돋이가 풍기는 정서와 매력은 신비로움과 우아함, 장엄함의 극지였다.

그 신비의 절경을 부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런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조선의 아침이 여기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오듯이 주체혁명위업도 여기 백두산에서 시작되었습니디. 나는 여기에 올라 저 붉게 타오르는 해돋이를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야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더 굳게 다지게 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백두산의 해돋이를 사랑합니다. ...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이런 시편을 작사하셨는지 모르지만, 혁명이 위대한 전환으로 나가기 하는 중대한 시기마다 자주 백두산에 오르시어 눈부시게 떠오르는 해돋이를 바라보시며 그리도 크나큰 용기와 희열에 넘치시였는가.

백두산의 해돋이는 우리앞에 걸어 온 승리의 길과 걸어갈 영광의 길을 생생히 펼쳐보이며 이끌어가는 붉은 화광처럼 심장이 부글부글 끓게 한다.

용광로의 쇠물마냥 활활 타오르는 백두의 붉은 노을을 가슴에 안아보시라. 주체붉게 피어오르는 노을을 보면서는 장쾌한 노을, 백두산의 해돋이가 기발이 어려오고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새겨진 항일의 피어린 자욱자욱,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빨찌산의 노래가

가슴을 울려준다. 작열하는 태양의 용솟음을 보면 혁명 위해 이 한몸 불태우리라든 피끓는 투쟁열, 위대한 당을 따라 백두의 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신념의 맹세가 온몸에 넘쳐난다.

조선의 자주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걸어온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더 용감하게 끝까지 가라고 소리치며 불타는 백두의 노을이어서 우리의 가슴 그토록 격정에 넘치는것이리라.

지난해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천지를 통틀어 뒤호든 사나운 눈보라를 맞으면서 백두산이 태동한 온 나라가 태동한다. 지금같이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아야 백두산의 진맥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 그리도 그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에서 천만의 심장을 팡팡 울린다.

이날 백두산의 눈보라는 백두의 칼바람이며 백두의 기상이라는 유명한 정칙화를 주신 그이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않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재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런 철석의 의지를 안고서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억척같이 심어주시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꽃피우어 가라고계신다.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삼복의 무더위도, 눈보라세한 폭설길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천지의 끝까지의 길에 계시는 그의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칼바람 휘몰아치는 백두산의 해돋이, 그것은 혁명의 성산이 안아올린 장막을 밀어내시며 최후승리의 진군로를 열어주시는 정의의 수호자가 우리 원수님이시며 온 우리를 뜨겁게 불태우며 떠오르는 태양처럼 정열에 넘치고 아찔해빛처럼 자애로운 열의인 이 바로 우리 원수님이시디.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총대로 제국주의강적의 기를 꺾어놓으시는 장군님은 배짱, 기백있고 변화무쌍한 활동방식과 비상한 전개력, 해빛과도 같은 환하신 미소...

참로 우리 원수님의 기상은 백두산불노을의 기상이다.

백두산행의 장군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크나큰 행운이며 더없는 영광이다.

천만군민이여, 사나운 칼바람 휘몰아치는 백두산의 해돋이를 언제나 심장에 안고 살자.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해 백두의 해돋이처럼 열렬하게, 강성국가건설에 지혜와 열정을 바치고 원수들과 판가리결전을 벌려도 백두의 칼바람처럼 기세차게,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광명한 미래로 노도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다.

백두의 노을이여, 위대한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의지를 비껴안고 더 붉게, 더 뜨겁게 라오르라!

글 쓴기자 김 승 표  
사진 본기자 김 진 명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감비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반 축 김 비 아 공 화 국 대 통 령

### 야야 에이. 제이. 제이. 자메흐각하

나는 감비아특별 50쪽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독립후 지난 50년간 당신과 귀국인민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귀국에서는 나라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과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4(2015)년 2월 12일 평 양

## 공동구호의 기본정신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가 올해의 총공전에서 전진의 보복을 크게 내짚으며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 내기 위한 무엇보다도 공동구호에 판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공동구호의 기본정신은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는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견인발발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조국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정신의 해로 빛내야 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높이 올려 조국해방과 당장건 일흔년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야 하겠습니다.》

당정책의 본질과 요구, 그 정당성을 뚜렷히 알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의 첫 공경이다.

그러면 공동구호의 기본정신에 담겨져있는 우리 당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올해의 총공전에서 우리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 모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 인민들이 좋아하는 공장이라 하시며

##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 깃든 절세위인의 령도자욱을 따라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적인 자욱이 이 계절에도 편편히 새겨지고있다.

절세위인의 그 자욱을 따라 우리는 열마디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우리 공장입니다!

공장주인들의 맑은 절절하였다. 그 목소리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열렬한 칭송과 흠모의 정이 어려 있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 중순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떠받쳐 영광스러운 시대를 건설하여 주세 100(2011)년 10월에 조업한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식료품공장이다.

아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의지로 되고있다. 천만 군민과 종업원들의 마음은 송구스러웠다. 애오라지 인민을 위해,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밤낮이 따로 없이 전진길,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앞길에 항기 넘치는 꽃수단만을 퍼드리고싶은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

격정으로 젖은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한 그 마음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게 공사를

벌려놓은 공장에 찾아오다니 일군들이 송구스러워하는데 일없다고 하시며 공장의 곳곳에 위대한 령도자욱을 새기시였다.

자욱을 새기시였다.

음료작업반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은 무슨 물을 쓰는가, 설탕은 어디서 짚는가 등을 일일이 물으시고 음료생산에 수질이 좋은 물을 리용하여야 한다고 다짐히 이르시였다.

빵작업반 생산현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포장지에서 나오는 강냉이단출입소뿤을 천히 들이보시며 개별포장한 비닐봉지에 생산날자와 보관기간, 보관조건을 정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고 그에게 일러 주시였다.

과자작업반 맛은 어떤데 있는 방에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가득 쌓여있는것을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웠다.

그이께서 일군이 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을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었다.

그의 말을 기쁨속에 들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이 이 식료품들을 다 좋아한다는데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좋은것이라고, 모든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평가라고 하시며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한평생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리 바치신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모습으로 고결한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모든것을 리용하는 절세위인의 모습이 좋았다. 그리고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식료품생산을 정상화한데 대한 문제로부터 가지수를 늘리는데 대한 문제며 정 보상의 요구에 맞게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 무공해, 무진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생산선들의 나드는 곳에 위생통과실을 꾸리고 식료품들에 대한 검사를 잘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며 공장의 곳곳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 한것을 안겨주시려 차디찬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며 그토록 마음 쓰신 절세위인의 현지도화복들은 우리의 심금을 시중 뜨겁게 울리었다.

공장의 곳곳에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당정책관철에 앞장선 공장, 자력갱생하는 공장, 인민들이 좋아하는 공장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리고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당정책관철에 앞장선 공장, 자력갱생하는 공장, 인민들이 좋아하는 공장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리고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당정책관철에 앞장선 공장, 자력갱생하는 공장, 인민들이 좋아하는 공장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아버지의 자욱을 삼가 따르는 우리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극진한 사랑이 어린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히 안겨왔다. 뜨거운 은정이 어린 식료품들을 만나니 들고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내어 국제경쟁마당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 정열인들에게 공명하고있는데 공명하는 인민들이 종업원들을 위하여 애써 일한다는것이 알린다 하시며 치하해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우니 우리의 가슴은 더욱 후두위를 울렸다.

절세위인들의 극진한 사랑이 좋고 훌륭한 식료품들을 만들어 그이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할것이라고 불같은 심정을 터놓았다.

절세위인들의 극진한 사랑이 어린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돌아보는 우리의 가슴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것이라는 확신이 차넘치었다.

본사기자 김 인 선

#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갈 불같은 열의

## 강산에 넘치는 위인 칭송의 메아리

### 뜻깊은 광명성절을 계기로 각지 당조직들에서 진행된 다양한 정치사업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은 2월의 내 조국강산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와 칭송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은 2월에 들어와 다양한 정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온 나라를 위인칭송의 열기로, 유순관철의 의지로 세차게 끓어오르게 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업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할수록 더욱 분출되게 된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 넣기 위한 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조직진행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등 사상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이 해설강의, 문답식 학습강연, 접견자와 연고자들의 강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고 있다.

중대원구역과 강서구역, 회령시와 사리원시, 함주군과 락원군, 친내군 등 온 나라의 시(구역), 군당조직들에서는 자기 단위에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장군님에 대한 찬없는 그리움을 안고 2월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도록 하였다.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순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높은 생산적양양으로 뜻깊은 2월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순천지구청년단방직합기소, 북창화력발전전합기소, 성진제강련합기소, 남흥청년화력련합기소, 해산청년방직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는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에서는 장군님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사업실적으로 2월을 뜻깊게 빛내이도록 화진석적지사업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갑산군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정협동농장의 저수 확치를 비롯한 땅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2월을 뜻깊게 장식하고 있다.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지계에 거름을 들뜬 지고 왕복수입리킬을 오르내리는 군당책임임시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뒤를 따라 군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50여정도의 부침개를 개량하는 사업을 마지않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는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열린 제 19차 김정일화추진과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 진행되는 김정일화추진회를 통해서도 뜨겁게 끓어지고 있다.

성, 중앙기반의 당조직들에서는 어버이장군님을 천세만에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당원들과 정무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피운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안고 축전장으로 달려갔다.

백두산기슭의 향도라와 사해기슭의 연백별, 나라의 최북단인 온성군과 분계연선도시 개성시 아닌 온 나라 그 어디서나 위인칭송의 꽃바다가 펼쳐져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에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넘칠수 없는 땅을 더욱 활짝 펼쳐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계기로 가는 곳마다에 위인칭송의 메아리!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선군대장으로 찬탄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찬탄의 외침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2월은 봄입니다》의 노래를 안고 온 나라가 오르는 백두산! 우리는 지금 백두산밀영고향집트락에 서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이 나라의 천만자들이 백두산밀영고향집트락으로 끌어들어 들어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 민족, 김정일조선이 걸어온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어 온영까지 승리하여 온 영광된 력사입니다.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초승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 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백두산밀영고향집트락으로 끌어들어 들어선 혁명의 성지에 바쳐지는 학생소년들의 총정은 또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에 소중한 인민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꿈결에도 그리던 고향집트락에서 삼가 옷깃을 여미며 그들이 터진 심장의 목소리는 얼마나 뜨겁겠는가.

백두의 정기를 안고 탄생하여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호모와 정과 불같은 맹세의 분출이 백두산정에 메아리친다.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마을을 잇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의 성지를 찾고 또 찾는 사람들속에는 일군들도 있고 각계층 근로자들, 로인들도 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20여년간 걸어 온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의 발걸음을 70고령에도 변함없이 이어가는 로명령을 백천번이나 리듬회화하며, 그들과 마음도 같고 가슴도 같은 만경대유회장관로 로동자 정진숙동무, 해마다 성의껏 마련한 판리도구들을 안고 찾아오는 개성시의 어느 한 단원일군 김지경동무... 혁명의 성지에 바쳐지는 학생소년들의 총정은 또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에 소중한 인민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현지에서 전송》 허일무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갈 결의에 넘쳐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학생들

얼마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은 나는 혁명사적교양실에 보존된 하나의 사적물 앞에서 발걸음을 뚫수 없었다.

공장을 마치막으로 찾으신 6년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소 보이주신 명주실터였다.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는 명주실터라, 위대한 어버이님의 따스한 체취가 느껴져 불수록 가슴이 찢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이민위천은 장군님의 혁명의 죄우머이었습니다.》

졌어오는 눈시울이 더더 못 잊을 그날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사진문헌들이 어렸다.

로근한 비단옷을 입고 기뻐하

는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한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영상!

복막힌듯 서있는 나에게 초큼 당원들은 목매어 이야기하였다.

《명주실터라를 만져보시면 소메 혼술이 났고 색이 바랜 어버이의 야전술 옷, 이 나라의 천만자들을 따듯이 감싸주는 조선의 특산-비단천. 이 얼마나 눈물겨운 화폭인가. 명주실터라, 나에게 이 하나의 사적물이 우리 장군님의 고생과 바나민인의 행방의 향종이라, 장군님의 눈물겨운 인민사랑의 한평생을 비추주는 거울로 기뻐하게 새겨졌다.》

본사기자 김향란

## 전투장마다에 몰아치는 유순관철의 열풍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은 2월의 혁명업적을 힘있게 벌여 유순관철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게 하고 있다.

성장에 타고르는 두 전선의 불길은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승강의 봉화를 번갈아가며 높이 추켜들고 가려는 이국 련합기업소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를 본다.

발동하기 위하여 일군들 모두가 탄전을 타고나도록 하였다. 그들은 현장을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낮은 전압에서도 율비들을 만가동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

고 일판을 벌였다. 석탄층산의 불길은 그대로 주체혁명생산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1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승강의 로동계급은 2월의 하루하루를 높은 생산적양양으로 빛내이도록 하였다.

성장에 타고르는 두 전선의 불길은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승강의 봉화를 번갈아가며 높이 추켜들고 가려는 이국 련합기업소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를 본다.

발동하기 위하여 일군들 모두가 탄전을 타고나도록 하였다. 그들은 현장을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낮은 전압에서도 율비들을 만가동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

## 날 바다에서 2일간

얼마전 《스-안-16》 호가 날바다로 나왔다. 여기에는 김정숙수산사업소 초급당원인 윤학주동무도 있었다. 올해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자고 자주 어로공들과 함께 항해에 나서곤 하는 그였다. 그러나 이번 항해는 류달랐다. 사흘이 배는 바다에 나가기 전에 어구자재가 불뎠어 출항을 미루고있었다. 초급당원인 윤학주는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결심했다. 물에서 우는소리를 할것이지 아니라 날바다에 나가 방도를 찾아, 이렇게 되어 항해길에 올랐었다. 배를 타고 그윽하고 들이던 정지상태로 하였고 어로공들과 방도를 토론하였다.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소를 여러차례나 찾아오셔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할금산사랑무대

초산호출공예에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황금산사랑무대

## 적은 원가로 큰 실리를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서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국도처에 마려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 온실과 버섯생산기지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흥하는 단위에는 자랑도 많다. 자체 힘으로 교육조건과 환경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신시켜 자랑을 떨친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서 버섯 기르기까지 잘하여 더욱더 소문을 내고있다. 지난 한해에만도 22의 버섯을 수확하여 교직원, 학생들의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대학에서는 기틀 대 버섯 수확량을 100%로 보장하고 있다.

우수화장들에서 나오는 황성감탕은 리진, 알라닌, 로이신, 페닐알라닌 등의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한 10여종의 아미노산이 균형적으로 들어있어 버섯의 질소영양원으로서의 리용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칼슘, 칼리움, 철, 마그네슘을 비롯한 필수원소들과 각종 비리민

# 버섯재배를 많이 하여 그 덕을 보게 하자

파산군버섯공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버섯재배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이곳에서 도적진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공장이 버섯생산에 앞장선 단원리라는 것을 잘 알수 있다. 비결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당의 방침을 받들고 공에서 공장을 건설한 후 지난해 처음으로 버섯생산을 시작하면서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두가지였다. 먼저 버섯기질의 무균화를 보장하는 문제였다. 그것이 수확에 주는 영향이 크기때문이었다. 기질원료를 야외에서 발효시키는 방법을 받아들인 것을 놓고보자, 지난해 시에는

실리 있는 기질리용 방법

파산군버섯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실내에서 기질원료를 받들기 위해서는 데멜감이 많이 요구되었다. 또한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서 기질염도를 낮추기가 쉽지 않았다. 일군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연구사, 기술자들을 찾아가 그 방법을 토의하는 과정에 한가지 문제에 주의를 돌려지게 되었다. 거름생산방법으로 기질원료를 야외에서 발효시키는 수확을 보았다. 처음 버섯재배를 시작할 때 일군들이 걱정하였던 기질원료의 부족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높은 세운 버섯생산목표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맥을 놓고버렸다 하였다. 원가를 최대한 줄이면서 생산을 늘이는 것은 우리 당의 뜻이며 오늘날 어느 단위에서나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관점



버섯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연관군버섯공장에서-

자기 고장에 흔한 참나무잎으로

경흥군 안길협동농장에서

농후군 안길협동농장에서 참나무잎을 버섯생산에 리용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장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참나무잎을 대용기질로 리용하는 경우 장병이속과 쌀겨를 전혀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강병이속을 함때보다 버섯수확량이 더 많다고 한다.

그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나무잎을 깨끗이 먼지 제거제와 2:1~2.5:1의 비율로 잘 비무른다. 여기에 5%정도의 소석회를 섞고 비닐박막에 싸서 7~10일간 밖에 놓고 발효시킨다. 다음 종균을 접종한 후 이것을 일정한 크기의 파상에 풀고 무른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7월과 8월 두달동안에만도 적지 않은 양의 버섯을 수확하였다.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고 성과도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소개하게 되는것은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기질문제를 해결하

여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버섯의 나라로 만들에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이곳 일군들의 그 마음, 그 열정이 소중하기때문이다.

농장주변의 산에는 참나무가 많다. 지난해에는 참나무잎을 대용기질로 리용하는 버섯재배를 더 리용하게 하는 목표에 의해 그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 적은 원가로 큰 실리를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서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국도처에 마려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 온실과 버섯생산기지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흥하는 단위에는 자랑도 많다. 자체 힘으로 교육조건과 환경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신시켜 자랑을 떨친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서 버섯 기르기까지 잘하여 더욱더 소문을 내고있다. 지난 한해에만도 22의 버섯을 수확하여 교직원, 학생들의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대학에서는 기틀 대 버섯 수확량을 100%로 보장하고 있다.

우수화장들에서 나오는 황성감탕은 리진, 알라닌, 로이신, 페닐알라닌 등의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한 10여종의 아미노산이 균형적으로 들어있어 버섯의 질소영양원으로서의 리용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칼슘, 칼리움, 철, 마그네슘을 비롯한 필수원소들과 각종 비리민

# 뜻깊은 2월의 꽃바다에 뜨겁게 굽이치는 다함없는 그리움

## 제 19 차 김정일 화 축전장에서

###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모신 영광 끝없다

얼마전 우리는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절인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성대히 열린 제 19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친세면에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람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중앙전시회에 들어서니 만발한 화원속에서 환하게 웃고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이 숨뿜어내려왔다.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만발하는 화원속에서 영원히 모시고 싶은 천만민국의 마음이 그대로 비껴서서 대원수님들의 환신 영상을 중심으로 훌륭히 형성된 인민력투부와 위무성의 전시에 불멸의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소원을 담아 불멸의 꽃들로 훌륭히 형성한 대형꽃바구니며 당기와 최고사령관기, 《백두산혁명 영원하리라》의 글발... 전시대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친세면에 높이 우리러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

의 명도를 받들어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어 참관자들에게 커다란 격정을 안겨주었다. 참관자들의 물결을 따라 우리는 2층으로 향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이 있어 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될 수 있었으며 인민이 누리는 오늘의 행복이 마련되었음을 다시금 새겨보게 하는 무력기만 전시대들, 절세위인께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전시대, 언제나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애국의 길을 곳곳이 걸어갈 제일동포들의 송고한 충성을 담은 총련중앙상임위원회전시대를 비롯한 많은 전시대들이 축전장을 황홀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조선김정일화김정일화위원회 의 일군으로부터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여 만발한 김정일화》라는 축전의 주제에 맞게 사상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성된 전시대들에 만발하는 태양의 꽃 김정일화가 지난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만 상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다. 원종적특성을 잘 살리면서 더 아름답게 피운 불멸의 꽃들로 훌륭히 형성한 정조시대전시대를 비롯하여 농업성, 수산성, 건설경제공업성, 인민봉사축전시대 등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헌신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불타는 맹세의 메아리가 세차게 울려나오는듯한 김정일화축전장전시대, 장군님의 유혹 받들어 세계대륙을 틀어쥐고 람홍색공화국을 더 높이 휘날릴 계승인들의 필승의 의지를 담아... 이윽고 우리는 국가과학원 전시대로 걸음을 옮겼다. 300여상의 활짝 핀 김정일화 등으로 모셔진 태양과 눈부신 해살을 특색있게 형성하고 《장군님은 인류의 태양》이라는 글발을 새긴 전시대가 한쪽의 그림자처럼 안겨왔다. 그리고 광역에는 아버지장군님 그대로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들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사를 전하는 위성과학자핵지구와 연공과학자효양수 등이 잘 형성되어있었다. 언제나 과학자들을 마음속 가까이 두시고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리러더 더욱 굳건하게 그려주시는 장군님 생각으로 눈시를 적시던 과학자들, 위대한 장군님께 뜻다른 충성을 함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과학기술로 더 잘 받들어갈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맹세를 담고 함께 피어나는 불멸의 꽃들을 참관자들의 가슴에 뜨겁게 올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길이 빛내어갈 신념을 담은 국가선봉관과 조선혁명박물관전시대, 전민과 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

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불타는 맹세의 메아리가 세차게 울려나오는듯한 김정일화축전장전시대, 장군님의 유혹 받들어 세계대륙을 틀어쥐고 람홍색공화국을 더 높이 휘날릴 계승인들의 필승의 의지를 담아... 이윽고 우리는 국가과학원 전시대로 걸음을 옮겼다. 300여상의 활짝 핀 김정일화 등으로 모셔진 태양과 눈부신 해살을 특색있게 형성하고 《장군님은 인류의 태양》이라는 글발을 새긴 전시대가 한쪽의 그림자처럼 안겨왔다. 그리고 광역에는 아버지장군님 그대로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들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사를 전하는 위성과학자핵지구와 연공과학자효양수 등이 잘 형성되어있었다. 언제나 과학자들을 마음속 가까이 두시고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리러더 더욱 굳건하게 그려주시는 장군님 생각으로 눈시를 적시던 과학자들, 위대한 장군님께 뜻다른 충성을 함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과학기술로 더 잘 받들어갈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맹세를 담고 함께 피어나는 불멸의 꽃들을 참관자들의 가슴에 뜨겁게 올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길이 빛내어갈 신념을 담은 국가선봉관과 조선혁명박물관전시대, 전민과 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

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불타는 맹세의 메아리가 세차게 울려나오는듯한 김정일화축전장전시대, 장군님의 유혹 받들어 세계대륙을 틀어쥐고 람홍색공화국을 더 높이 휘날릴 계승인들의 필승의 의지를 담아... 이윽고 우리는 국가과학원 전시대로 걸음을 옮겼다. 300여상의 활짝 핀 김정일화 등으로 모셔진 태양과 눈부신 해살을 특색있게 형성하고 《장군님은 인류의 태양》이라는 글발을 새긴 전시대가 한쪽의 그림자처럼 안겨왔다. 그리고 광역에는 아버지장군님 그대로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들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사를 전하는 위성과학자핵지구와 연공과학자효양수 등이 잘 형성되어있었다. 언제나 과학자들을 마음속 가까이 두시고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리러더 더욱 굳건하게 그려주시는 장군님 생각으로 눈시를 적시던 과학자들, 위대한 장군님께 뜻다른 충성을 함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과학기술로 더 잘 받들어갈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맹세를 담고 함께 피어나는 불멸의 꽃들을 참관자들의 가슴에 뜨겁게 올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길이 빛내어갈 신념을 담은 국가선봉관과 조선혁명박물관전시대, 전민과 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

형성도안에 비긴 그리움의 세계 어느 전시대나 그러하지만 국토환경보호성전시대에 참관자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기고 있다. 축전장을 보다 특색있게 장식하고있는 전시대의 형상은 그대로 아버지장군님을 못 잊어 그리는 성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절절한 마음의 분출이다. 축전준비사업에서 생력일군이 중시된다는 하나가 바로 전시대형성도안장작이었다. 한번듯하게 정리된 풍요한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패일을 그려보시며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의우시던 우리 장군님의 넓은,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로화, 원림화할대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구상을 전시대에 그대로 반영하자. 전시대형성도안장작이 성격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모두의 지혜와 열정이 합쳐졌다. 축전준비사업은 잘은 리경심, 김승희동무들은 조선김정일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들과 마주앉아 협의도 하고 또 전문작가기관의 창작가들과 의견도 함께 나누며 도안장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바치었다. 그 과정에 창작된 협의의 도안들을 놓고 거듭 협의의뢰만 해도 그 몇번인지 모른다. 이렇듯 그리움으로 불타는 마음들이 모여 활짝 핀 불멸의 꽃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지조도하신 중앙양묘장의 여러곳을 실감있게 형성한 모형 등으로 이채롭게 장식된 전시대를 펼칠수 있었다.

전시대들에 어려웠던 불타는 그리움의 열정을 품다의 충정

김정일화의 특성을 잘 살려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이번 축전에도 선군정년전열의 불타는 맹세가 비껴있는 전시대를 펼쳐놓았다.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한개체에 여러 종류의 김정일화들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이다. 우리와 만난 온실실장 박성미동무는 충충으로 올라가면서 피는 불멸의 꽃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온실에서는 이미진부터 한개체에서 여러 종류의 김정일화들을 활짝 피워 축전장에 내놓은 한다고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그 비결은 김정일화배판에서 과학기술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한개체에서 여러 종류



—인민보안부전시대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절세의 위인은 인류의 마음속에 어떻게 영생하시는가. 우리는 이 력사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며칠전에 돌아본 제 19차 김정일화축전장에서 다시금 가슴뜨겁게 찾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국가관공총국전시대에서도 여러 나라 단체들과 외국의 벗들의 명의로 된 수많은 태양의 꽃들이 아름다운 꽃잎들을 활짝 펼치고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몽골 김정일성유치원, 몽골 김정일유치원, 몽골 김정일유치원,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스위스조선위원회,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중국항일혁명렬

최고 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린 태양의 꽃 김정일화! 절세위인의 위대성에 매혹된 심장이 반짝이는 김정일화들은 수시년세월이 흐른 오늘날도 이렇게 만민의 가슴마다에 불개 피어 향기를 풍기고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하여 세계적인 화초전시회들과 원예박람회들에서 《꽃의 천사》, 《천만꽃을 거느린 꽃중의

현명한 명도력, 고매한 품도를 지니신 김정일장군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은 불멸의 꽃이다. 인류의 향기를 내뿜는 울은 평가였다. 세계 정세, 사회계인사들이 타진 격정의 목소리 또한 우리 가슴에 울려나오는 위대한분을 모시고 혁명을 해왔는가 하는 크나큰 긍지로 한껏 가슴부풀게 한다. 인류자주위업의 태양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절세의 명도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

## 위인과 명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꽃바다, 정충의 꽃바다가 펼쳐진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던 우리는 외교단사업총국의 전시대앞에서 위이 발걸음을 땀수가 없었다. 전시대중심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간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흥모의 마음을 담아 붉게 핀 김정일화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축원하는 꽃바구니를 형성한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던것이다. 우리와 만난 총국의 책임일군인 문재현동무는 이번 축전장에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많은 주요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의 명의로 된 김정일화가 출품되었는데 이것은 불멸의 꽃축전에 대한 외국의 벗들의 관심과 열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고 격조높이 이야기

사 장을화가죽...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는 온 세상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여기 불멸의 꽃축전장에 다 모여온듯싶었다. 세계자주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인류의 태양, 날이 갈수록 그 위대성이 더욱더 빛나는 절세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흥모심을 안고 영생 축원의 꽃바다에 자기들의 진정도 소중히 엮은 세계의 벗들이다. 인류의 간절한 마음안고 더욱 붉게 타는듯 한 불멸의 꽃들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언제나 아름다운 꽃처럼 인민의 행복, 사랑만이 갖는 평화로운 세계를 원하며 일본의 원에학자기가 온갖을 바쳐 유종한정하여 인간사망의

정의로 온 세계를 위하여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을 더욱 찬란히 뿌려주시고 선군의 총대로 사나운 광풍을 칠갈기며 인류의 자주위업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리를 벽사에 새기신 우리의 김정일동지. 이런 희세의 위인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생할임을 인류는 태양의 꽃에 담아 끝없이 노래하고있다. 진정 절세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흥모속에 누리에 만발하는 불멸의 꽃, 세계제일명화로 그토록 사랑받는 김정일화의 성대한 축전이야말로 태양영생의 고귀한 진리를 벽사에 길이 전하는 세상에도 들도 없는 뜻깊은 꽃축전이라는 생각에 우리의 가슴은 끝없이 설레이었다. 본사기자 김병훈

## 심장속에 뿌리내려 더욱 붉은 김정일화

대성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 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이야기, 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전시대형성도안을 완성한 이야기, 김시승, 최재동 등 무를 비롯한 온실실장들의 생황을 보아온 이 깊은 관심을 들은 이야기... 입원치료를 받는 속에서도 도보장을 위해 사색을 기울이고 또 수백리 온실장기를 다녀온 김은 남에 돌출부리 찾아와 힐끔 주는 책임일군들의 그 열정이 원예사들을 감동시키곤 하던 날과 날들은 얼마지나지 않았다. 많은 일로 언제나 드라마 속에서도 불멸의 꽃배사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힘있게 떨어내준 최필요한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준



